개요

OECD 농업 부문 전망 2003-2008

Overview

OECD Agricultural Outlook 2003-2008

Korean translation

개요는 **OECD** 출판물의 발췌문을 번역한 것으로,
OECD Online Bookshop www.oecd.org/bookshop/에서 무료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본 개요는 **OECD** 공식 번역이 아닙니다.

OECD OCDE

ORGANIS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경제 협력 개발 기구

개요

단기적인 작물 및 가축류 가격동향은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모든 시장은 중기적으로는 강세를 보일 것이다.

2008 년까지의 OECD 지역 농업부문 중기 예측에 따르면 단기 작물 및 가축 시장의 전망이 각기 다르다. 북미와 호주에서의 가뭄으로 인하여 전세계 작물 공급량의 감소와 전세계 작물 재고의 감소로 인해 예측보고서 작성 착수시기에 곡물 및 깨 가격이 급격하게 상승하게 되었다. 곡물 및 깨의 가격은 2008 년까지 생산량이 증가 및 안정됨에 따라 초기에는 하락할 것이고, 수요는 강세를 띨 것이다. 쌀은 여기에서 예외이며 세계 쌀 가격은 시세 이하의 수준이지만, 쌀 가격은 재고가 줄어들면서 중기적으로 상당히 상승할 것이다. 많은 OECD 국가들에서 계속되고 있는 지원 및 보호조치와 설탕공급량과 저 비용 생산업자들의 수출 증가는 잉여 지역 시장의 설탕가격이 장기적으로 저조할 것을 의미한다. 곡물과 깨의 상황과는 대조적으로 많은 가축 시장들은 가뭄 및 수요저조, 사료가격 상승으로 인한 생산증가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저조한 모습을 띠고 있다. 이는 생산이 조정과정을 거치고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서 대부분의 육류 및 낙농제품의 가격은 전망기간 동안 단기적으로 볼 때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생산성 증가로 인한 공급량 증가가 가격상승의 폭을 완만하게 만들 것이라 예측된다. 2004 년부터 OECD 지역에서, 특히 개발 도상국들에서의 경제성장률 상승과 인구증가는 수요증가로 이어지고, 이는 많은 농산품에 있어서의 소비, 무역 및 가격 상승을 가져오고 있다

지정학적, 경제적 상황은 계속해서 불안정성의 요인이 되고 있다.

농산품 시장의 전망에 관해서는 분명히 불확실성이 존재한다. 단기적 예측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점은 지정학적 불안정성이 전반적 경제 전망에 미치는 영향이다. 유럽과 일본에서는 성장이 둔화되는 가운데 OECD 지역에서의 경제회복은 미국 경제상황에 달려있다. 그러나, 미국연방예산 적자가 늘어남에 따라서, OECD 지역 경제 회복을 지연시키거나 이에 찬물을 껴 얹는 역할을 할 수 있다. 무역분쟁을 완화시키고, 주요 무역상대국 간 국제 협력을 강화시키기 위한 노력을 다시 기울려야 하며, 그렇게 함으로써 세계경제의 자유화에 이바지하게 될 것이다. 농업부문에 있어서 계속적으로 무역 왜곡적인 지원 및 보호조치가 늘어감에

따라서, 전세계경제의 둔화가 장기화 되면, 현재 예측치 보다 더 무역이 감소할 것이고 전세계물가가 낮아 질 것이다.

주요 특징적 전망

OECD 국가들의 경제성장 둔화는 세계 경제회복을 지연시키고 있다.

OECD 지역의 농업부문에 대한 예측은 농업부문에 영향을 미치는 국내 및 국제적 요인들을 설명하고 있다. 국제적 요인은 단기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거시경제적 환경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개선될 것이라는 추측을 그 기반으로 하고 있다. 세계경제는 주식시장붕괴, 대외무역수지의 불균형, 일본과 유로 지역에서의 수요감소의 영향을 받고 있다. 그 결과 계속되고 있는 세계 경제성장의 둔화가 2003 년에도 3 년째 계속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많은 OECD 국가들의 경제 성장속도는 세계경제평균성장률을 계속해서 밑돌고 있다. 단기적인 성장둔화는 부분적으로는 이라크 사태로 인한 지정학적 불안정성과 관계가 있다. 주요 OECD 국가들에서 경제성장률 저조가 장기화되고 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비록 사스 발병이 경제활동, 성장률, 무역에 악영향을 미치기 시작했지만, 일부 개발도상국가들, 그 중에서도 특히 아시아의 경제상황은 상대적으로 활황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OECD 지역의 경제 발전을 저해하는 영향들은 감소하고 있고, 2004 년부터는 세계 경제 성장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나, 재정상태가 개선되고 유가가 하락함에 따라, OECD 지역 국가들의 경기회복을 지연시키고 있는 악천후는 2003 년 초에 주춤하고 있다. 현재의 여러 가지 어려움이 극복될 수 있다면, 미국경기 회복이 OECD 국가들의 경기를 진작시키는 동력요인이 될 것이다. 이는 유로지역의 경제성장은 저조하고 일본에서의 경제 성장률은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앞으로 OECD 지역 국가들의 경제는 잔여 전망기간 동안 1990 년대와 비견할 만한 폭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측된다. 아시아와 라틴아메리카 지역의 많은 개발도상국들은 중기적으로 더 강력한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 지역 국가들의 경제 성장률은 중기적으로 연평균 4.5%의 강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환율동향은 OECD 국가들의 농업부문경기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가 되어, 농산품의 무역과 규모에 있어서의 경쟁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환율 약세는 브라질이나 아르헨티나 같은 개도국 지역의 농업강국들 사이의 경쟁을 심화시킬 것이다. BOX 2 는 아르헨티나 농업이 경제적 어려움과 현재 환율 하락에 어떠한 반응을 할 것으로 예측되는지를 검토한 것이다. 이러한 제한적 분석을 통해 대폭적인 통화가치 하락이 농업활동의 초점을 가축류 생산에서 작물분야와 수출로 재편성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다.

개도국에서의 인구 및 소득 증가가 생활에 변화를 가져오고 식량수요를 늘리는 요인이 되고 있다. 식량수요가 "성숙된" OECD 시장에서는 식량 수요가 둔화되고 있다.

개발도상국에서의 소득인상과 계속되는 이농인구증가로 인하여, 이 지역 소비자들의 식생활이 다변화되어 곡물 및 주식 이외에 동물성 단백질 제품, 과일, 채소 및 가공식품 등의 소비가 증가하게 되었다. 개도국에서의 경기회복과 둔화되고는 있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는 인구증가율은 아직도 OECD 국가들 수치의 거의 두 배에 이르고 있으며, 식량수요증가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와는 대조적으로 많은 OECD 국가들에서의 식량수요는 포화상태에 이르고 있고, 시장의 성숙으로 인한 성장저조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OECD 국가들의 전망기간에 걸친 세계인구증가율 하락과 시장의 성숙은 농업시장에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친다. 첫째, 개도국들은 농산품의 국제수요증진에 있어서 더욱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둘째, 식량소비량 증가에 있어서 인구증가가 차지하는 비율이 점차 줄어들어 농산품 소비수요를 결정하는 1 인당 소득 증가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다. 개도국에서의 이러한 소비패턴과 수요에 있어서의 변화로 인하여 식량 및 식품의 수입증가와 많은 농산품의 가격상승이 유발되었다. Box 1 은 OECD 국가들과 일부 NME 국가들의 경제 성장이 국제물가와 소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것이다. 이는 전체적으로 수요가 소득의 변화에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더 민감한 가축생산품과 사료의 가격과 소비측면에서 더욱 큰 조정을 의미한다.

단기적으로 곡물 및 깨 가격은 하락할 것으로 예측된다.

밀, 잡곡, 깨의 가격은 2003 년에 급격하게 하락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는 생산량이 북미와 호주에서 가뭄으로 인해 감소한 후 다시 회복한 것에 따른 것이다. 그 후 가격이 생산량 및 재고량의 증가로, 특히 주요 수출국에서 서서히 상승할 것이다. 쌀의 경우는 다른 곡물과 상황이 다르다. 특히 전세계 소비가 생산을 몇 년에 걸쳐 초과했을 시에도, 시장에 부담을 주는 재고량 증가는 특히 중국에서의 쌀가격에 압박을 주게 되었다. 그 결과 전세계 재고량이 하락하게 되면서, 세계식량가격은 명목상 그리고 실질상 중기적으로, 급격히 상승할 것으로 예측된다. 주요 생산 또는 무역국가들에서 곡물의 부족으로 인해 가격이 단기적으로 급격한 상승을 정기적으로 보임에 따라 세계 곡물가격은 실질상으로 장기적인 하락세를 보여왔다. 이러한 급격한 가격상승 이후 생산이 회복함에 따라, 곡물가격 하락세는 다시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물가 동향은 생산량 또는 더 폭 넓게 말한다면 생산성의 향상을 의미한다. 곡물생산성은 전망기간 동안 계속해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며, 이로 인하여 세계 밀 및 잡곡생산이 2002~2008 까지 15%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가축산업성장으로 인해 가축사료수요가 증가할 것이다.

가축산업의 성장으로 곡류와 깨를 사료로 더 많이 사용하게 되었고, 이는 곡물수요를 움직이는 주 동력으로 작용하게 될 것으로 예측된다. 이러한 현상은 특히 소비자의 식생활이 고기와 낙농제품 같은 고부가가치 가공제품으로 바뀌어가는 개발도상국에서 그러하다. 그 결과 곡류와 깨의 소비는 가축생산이 늘어나게 됨에 따라서 개발 도상국에서 증가할 것이다. NME 국가들이 밀과 잡곡을 사료로 사용하는 비율은 2002~2008 년까지 약 19%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밀과 잡곡의 소비량이 OECD 국가들에서 거의 정체상태에 있는 반면, 전세계 밀 및 잡곡소비량의 약 2/3 를 차지하는 NME 국가들에서는 인구증가율보다 좀 더 빨리 증가할 것이다. 세계 깨 소비량은 2008 년까지 17% 증가하여 2 억 8 천 8 백만 톤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 중 가장 빠르게 증가를 보이는 것은 NME 국가들이며, 이들 국가들은 채소기름 소비 증가량의 많은 부분을 차지할 것이다.

국제 설탕가격은 중기적으로 저조할 것으로 예측된다.

국제설탕시장의 구조 변화는 중기적으로 볼 때 계속되는 국제 설탕가격의 저가행진과 가격변동이 별 변화를 보이지 않을 것을 뜻한다. 브라질은 주요 저비용 생산국으로 발돋움했고, 세계시장에서 현재 거래되고 있는 양에 상응하는 규모의 경쟁력 있는 설탕산업을 보유하게 되었다. 저생산비용의 효과와 여기에 저실질환율의 효과가 더해져 중기적으로 브라질은 저비용수출국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동시에 국제 설탕 시장은 많은 나라에서 여러 종류의 국내 및 무역정책에 의해 계속 영향을 받을 것이다. 예를 들어 브라질의 에탄올 계획은 사탕수수공급의 최종 할당량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어서, 국제 설탕가격을 결정하게 될 것이다. OECD 국가들에서의 이러한 정책들은 수출 공급량 증가에 기여한다. 다른 정책들은 무역을 제한하게 되어 세계시장의 크기를 한정시켰고 가격변동을 악화시켰다. 게다가 일부 회원국들의 무역정책은 일부 최빈국들에게 가격이 높은 OECD 시장에 확실한 시장접근을 제공해 주고 있다. 개발도상국들은 세계시장에 부담을 주는 설탕의 막대한 재고량을 소비해주고 있으며, 계속적인 소비증가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며, 공급과 수요간 균형을 맞출 수 있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1 인당 소비량은 심지어 개도국에서도 국가마다 다르다. 중국은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1 인당 소비량과 수입이 확실히 증가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국가의 예이다. 물론 다른 요소들, 예를 들어 인공 감미료의 가용성과 수입결정에 있어서의 정부의 계속되는 큰 역할 등이 BOX 4 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육류시장이 서서히 강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여러 종류의 국제 육류 시장은 상대적으로 전망기간 초기에 저조함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여러 나라에서의 가뭄으로 인한 도살, 저수요, 높은 사료가격 때문에 육류 공급량이 증가하게 되고, 이에 따라 생산자의 이득은 줄어든 것을 반영한다. 북미와 호주에서의 가뭄으로 인하여 소의 출하량과 소고기 및 송아지고기 생산량은 상당히 상승했다. 일단 이러한 가뭄이 발생하면 소 생산업자들이 향후 소떼를 비축하기 위하여 재고를 확보하려고 하기 때문에 소의 가격은 상승할 것으로 예측되고, 이는 2003 년 소 생산의 하락으로 이어질 것이다. 소의 수요가 증가하고 수익성이 향상되며, 사료가격은 소폭 상승함에 따라 소고기와 송아지 고기가격은 그 후 2006 년까지 상승할 전망이다. 또한 곡물과 깨 가격에 있어서의 제한적인 증가는 돼지와 가금류 생산의 채산성을 증가시킨다. 생산성 증가는 돼지와 가금류의 가격 상승폭과 속도를 완화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OECD 국가들에서의 소비자의 선호도가 계속해서 적색 고기류에서 백색 고기류 쪽으로 기울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가금류에 대한 소비지출을 늘리고, 특히 소고기 소비지출이 하락한 것에서 볼 수 있다. 1 인당 고기소비량은 NME 국가들에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 경제 성장이 더 빠르게 진행됨에 따라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중국 시장은 잠재적 성장가능성이 큰 국가 중 하나이다(BOX 참고). 이 분석에 따르면 중국의 WTO 가입한다고 하여 중국의 육류 수입이나 세계 육류 가격에 있어서의 중요한 변화를 유발할 것으로 예상되지는 않는다. 대부분의 육류의 국제가격은 경제 성장 속도가 빨라지고 수요가 증가하면서 전망기간 말에 2002 년 수준이 훨씬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도표 2 참조).

그러나 국제 낙농제품 가격은 소폭 상승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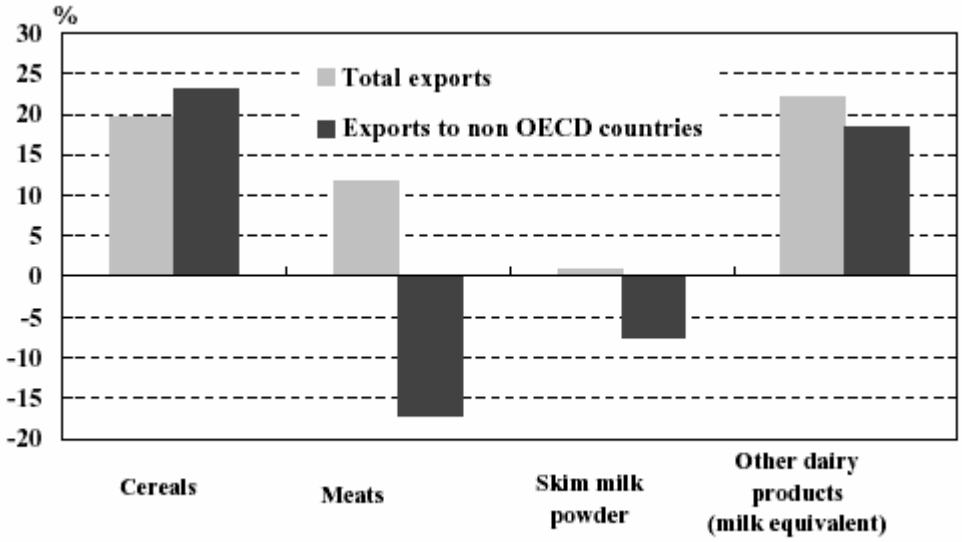
국제 낙농 제품가격은 오세아니아 지역의 공급량의 하락으로 인하여 전망기간 초기에 상승할 것이다. 이 지역의 우유생산증가는 가격상승속도를 주춤하게 만들 가능성이 크다. 생산성증가로 인한 우유의 전세계 공급량의 증가와 국제수요증가 속도의 감소는 또한 중기적으로 낙농제품의 가격상승을 제한하게 될 것이다. 우유생산의 최대 상승은 생산쿼터에 영향 받지 않는 NME 국가들과 OECD 국가들에서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소득이 더욱 증가되지만, OECD 국가들의 낙농제품에 대한 수요는 단지 소폭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각 제품 군을 살펴보면 OECD 지역에서의 소비는 전지분유와 치즈부문에서 상승할 것으로 보이며, 버터는 현 상태를 유지 할 것이고, 탈지분유의 소비는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일부 제품의 무역은 개도국이 주도하고 있다.

NME 국가들에서 수요와 공급량이 변화하기 때문에, OECD 국가들은 NME 국가들로 일부 제품을 수출할 수 있는 가능성이 더 커졌고, 또한 다른 제품들 같은 경우에는 경쟁이 더 심화될 것으로 예측된다. OECD 이외 지역에서의 몇몇 국가들은 최근에 주요 수출국으로 발돋움했다. 우크라이나는 곡물 시장에 주요한 영향을 미치는 수출국가의 예이다. 우크라이나의 농업산업의 전망은 "우크라이나의 미래 농업 및 무역발전의 주요 동력에 관한 농업전망보고서"에 기술되어 있다. 보고서에 따르록 강우가 제한적 요인이 되겠지만, 우크라이나는 중기적으로 곡물의 순수수출국으로서의 위치를 공고히 할 것으로 예상된다. 게다가 우크라이나의 사료 효율성이 향상될 것으로 예측되므로, 우크라이나가 소고기 순수출국으로 자리매김하고, 작은 규모지만 가금류의 순수입국이며 돼지고기의 순수출국으로 탈바꿈할 것으로 예측된다.

도표 1. OECD 수출 현황

(1997-2001 평균 대비 2008 년 전망)



제공: OECD 사무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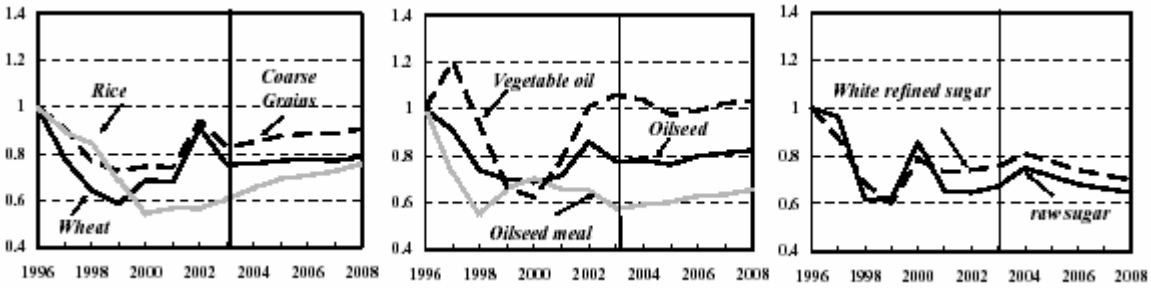
OECD 수출은 곡물이 주도 하고 있으며, 고부가가치 가공식품의 수출이 증가하고 있다.

OECD 국가들의 무역동향을 1997~2001 년의 평균치와 비교하면 순수무역에서의 최고 성장은 곡물 분야, 특히 2008 년까지 45%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는 잡곡분야에서 나타날 것으로 예측된다 (도표 1 참조). 식량과 사료로 쓰이는 밀의 무역은 거의 12%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OECD 국가들은 전체적으로 깨 및 깨 가루와 관련된 적자를 더 많이 경험하고 있으며, 2008 년까지 NME 국가들로부터의 순 수입이 증가할 것이다. 동시에 가공식품과 고부가가치 제품에 있어서의 무역량이 증가할 것이고, 특히 OECD 국가들의 수출이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주 예로는 낙농품, 그 중에서도 특히 2008 년 까지 전지분유와 버터의 수출이 20% 이상 증가할 것이며, 치즈의 수출은 그 보다는 낮은 수치이지만 역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그와는 대조적으로 NME 국가들로의 육류 순 수출은 전망기간 말에는 1997-2001 년의 평균 출하량과 비교할 때 더 적은 양을 기록했다. 이는 OECD 국가들의 육류 생산의 증가둔화와, 특히 EU 지역에서의 광우병 피해로 인한 수요감소가 회복됨에 따라서 다시 볼 수 있는 국내소비증가와, 또한 OECD 의 역내 무역 증가를 반영하고 있다. OECD 국가들 사이에서의 여러 종류의 육류의 무역증가, 특히 고부가가치 생산품의 무역증가는 다른 공급국가들과의 더 치열한 경쟁이 예상되는 NME 국가들로의 수출보다 더 중요한 의미를 띤다.

도표 2. 2008 년까지의 세계 가격 전망

(명목 가격표, 1996=1)



제공: OECD 사무국

정책결정이 시장에 주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OECD 농업부문의 지원 및 보호는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OECD 국가들에서의 현 정책과 정책변화의 지연은 중기적인 시장상황에 중요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 일부 OECD 국가들은 농업부문지원을 줄인 반면 다른 국가들은 늘렸다. 그리고 대부분의 국가들에서는, 특히 일부 제품에 한에서는 제공되는 지원혜택의 수준이 아직도 높다. 게다가 대부분의 지원정책은 비록 일부 국가들이 시장 왜곡을 줄이는 방향으로 노력하고는 있으나, 생산을 자극하고 무역을 왜곡시키는 방향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국내시장에서의 정부개입은 국제가격추세보다 더 많은 지원금을 제공함으로 인해 생산증가를 부추기고 있는 반면, 무역정책을 통해서 국내시장들이 국제가격 변화로부터 보호 받고 있다. 이는 많은 OECD 국가들의 생산업자들이 세계 시장의 동향, 또는 그로 인한 파장에 영향을 받지 않거나, 받는다 하더라도 부분적으로 받을 것이므로 시장 충격이 시스템 전체로 영향을 미치는 데에는 시간이 더 걸린다는 것을 의미한다.

미, EU, 일본은 가장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OECD 지역 내에서는 미국, EU, 일본에서의 정부지원과 보호정책들은 이들 국가들이 주요 농업생산국가로서 또는 무역국가로서의 규모가 엄청나기 때문에 농업시장의 중기적인 전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미국의 새로운 농업관계법은 지원조치를 늘리고 혜택을 받는 제품군을 증가시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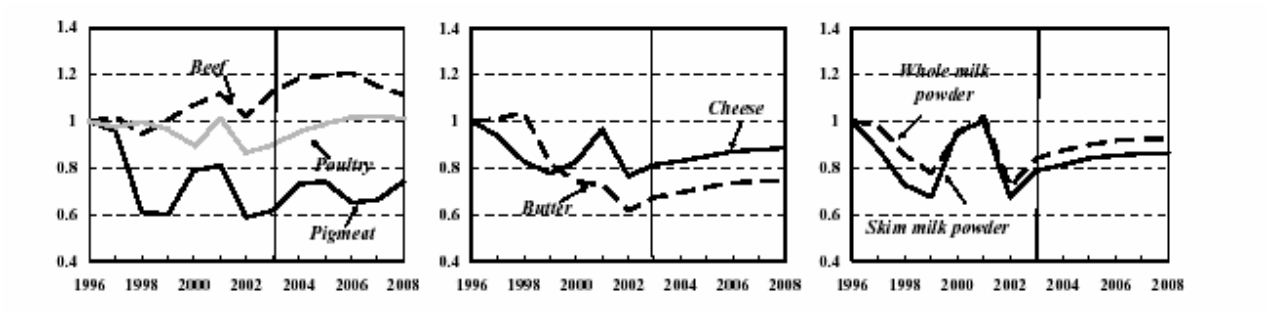
미국에서는 6 개년 2002~2007 농장보호 및 농촌투자특별법이 2002 년 5 월에 법으로 제정되었다. 이 신규특별법에 따라서, 1996 년의 FAIR 특별법 하에서의 초기 할당금 대비

지출권한이 강화됨으로 인해, 10 년간 미화 734 억 달러를 지원하고 대부분의 추가적인 지원금은 작물 분야을 위해 책정된다. 이러한 계획 하에서 추가적인 지원금이 반경기순환적인 지원금, 추가 직접지원금과 마케팅 융자지원프로그램을 위해 마련된다. 또한

원산지표시 프로그램이 도입될 것이다. BOX 6 는 신규 원산지표시 프로그램(CoOL)을 설명해 놓은 것이다. 이 프로그램은 소비자를 위한 정보를 개선시킬 것으로 예측되나, 소비자에게 건강상 및 식품안정성 측면에서 이득을 제공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확실치 않다. 관세율 쿼터, 마케팅 할당금과 비상환청구융자는 계속해서 미국 설탕 생산품이 국제가격수준의 두 배에 달하는 가격이 될 수 있도록 보호 지원하게 될 것이다. 우유와 낙농품은 최소가격, 정부매입, 마케팅지원금, 국경정책과 수출 지원책 등에 의해 지원을 받고 있다.

도표 2. 2008 년까지의 세계 가격 전망 (계속)

(명목 가격표, 1996=1)



제공: OECD 사무국

FAIR 특별법과 비교할 때 국제 가격의 영향은 상대적으로 적지만, 극히 세계 시장동향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추정된다.

BOX 3 은 FSRI 특별법하의 제품프로그램이 세계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놓은 것이다. 이 분석은 새로운 특별법과 전 FAIR 특별법 하에서의 프로그램과 규정이 계속되었을 때 있을 수 있는 상황을 비교해 놓은 것으로써, 신규 법으로 인해 특히, 작물에 더 많은 지원을 하게 되었고 보존비축프로그램(Conservation Reserve Program)의 혜택을 받는 지역이 증가하게 된다는 것을 보여준다. 전체적으로 FSRI 특별법의 영향을 받는 추수 지역은 더 규모가 작다. FAIR 특별법 하에서의 국제가격수준과 비교할 때 신규 법이 예측 시장 동향 하에서의 곡물과 깨에 미치는 영향은 상대적으로 적어서 잡곡의 경우는 -1%이며 깨는 +1%에 이른다. 그 영향의 규모는 국제가격동향 전망에 달려있다. 국제가격이 더 낮을 경우 작물에는 더 큰 영향을 주고 깨에는 더 적은 영향을 미친다.

EU 정책 개혁은 더욱 시장적으로 변화하고 있다.

지난 10 년간의 정책개혁은 지원이 일부 부문에서 제공되는 방식에 있어서 무역왜곡을 줄이는 방향으로의 변화를 가져오게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곡류와 깨 생산업자들을 위한 높은 지원가격은 공동농업정책(CAP)개혁 조치 하에서 지난 10 년 동안 줄어들었다. 반면에 가격인하 및 의무 보유금에 대해 농부들에게 보상을 하기 위하여 직접지원금이 도입되었다. 시장접근을 증가시켜주기 위하여 국경조치가 완화되었으나, 최근의 신규 TRQ(저관세 의무수입량) 조치가 도입되어 일부 곡물에 대한 시장 접근을 제한하고 있다. 설탕 생산업자들에게 있어서의 주요한 변화는 생산 쿼터가 감소했다는 것이며, 이는 URAA 하의 수출보조금제한의무를 수행하기 위한 것이다. 반면에 높은 지원가격은 수 년 동안 명목상 계속 유지되었다. EU 의 낙농 프로그램에 있어서의 일부 변화는 1999 년 베를린 CAP 개혁 협정 하에 합의된 사항을 초과 달성한 것이며 이러한 변화들은 2002 년 EU 집행위원회가 제안했다. 여기에는 2004-2008 년까지 EU 경쟁력 강화를 위한 우유쿼터증가와 버터와 탈지분유의 지원가격의 감소가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일부 주요 부문은 세계 시장의 움직임으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는다.

이러한 개혁정책들은 시장지향성을 증대시키는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으나, 일부 주요부문에서의 생산업자들은 세계시장 동향에 영향을 거의 받지 않고 있으며, 계속해서 높은 수준의 지원을 받고 있다. 그 결과, EU 지역에서의 농업부문 지원은 OECD 국가들 중 계속해서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2003 년 1 월에 발표된 EU 집행위원회의가 제의한 조치들은 지속적인 농업발전을 위한 장기적 개혁측면에서 볼 때, 여러 가지의 EU 제품부문에 있어서 공동농업정책(CAP)이 생산과 무역왜곡을 감소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의미한다.

일본에서의 지원수준은 여전히 높다.

일본은 OECD 지역에서의 농산품의 주요 수입국이다. 전반적으로 볼 때, 일본의 국내 농업은 규모가 영세하고, 국제적 기준에서 볼 때 비 경쟁적이다. 그리고 농부들이 계속해서 OECD 지역 국가들의 평균수준이상의 높은 지원과 보호를 받고 있다. 지원은 주로 국경정책, 그 중에서도 특히 관세쿼터와 우유생산과 농지전환에 관한 지원운영체제를 통해 제공된다. 전망기간 동안에 지원책 도입을 위해 구체적으로 계획된 개혁조치는 없다.

OECD 국가에서의 대부분의 지원정책은, 약간은 개선은 있지만, 시장을 왜곡시키는 요소가 되고 있다.

지원정책구성과 관련하여 일부 OECD 국가들은 자국의 생산업자들을 위하여 무역왜곡을 감소시키는 지원책을 추진하려고 노력하는 반면, 시장가격지원은 계속 유지되고 있다. 이러한 형식의 지원책은 생산 및 무역을 가장 심하게 왜곡시키며, 생산업자들의 소득원 측면에서는 가장 비효과적이며, 대부분의 지원이 몇몇 대형 농지에만 제공되고 있다. PSE 방식에 따른 지원에 관한 가장 최근 추산 수치에 따르면, 최근에 약간의 변화가 있음을 볼 수 있다. OECD 지역 내에서 우유와 소고기 생산은 계속해서 금전적인 측면으로 가장 많은 지원을 받고 있다. 쌀 생산지원이 측정 대상 제품 중 세 번째로 많은 지원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원규모를 생산자 수입대비 측정했을 때 80%의 PSE%의 쌀이 가장 많은 지원을 받는 제품이다. 많은 OECD 국가들의 우유 및 설탕 생산업자들은 경제발전을 위한 정부 프로그램에 상당히 많이 의지하고 있다. 그러나 각 제품범주의 지원수준은 국가들마다 큰 변화를 보인다. 거기다가 몇몇 국가들과 제품들의 경우 국제 시장가격은 각국의 국경정책으로 인하여 그 전파력이 낮다. 이는 시장의 영향이 생산의 구성과 규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능성을 줄여주고 농산품 소비자들의 복리를 낮추고 있다. 또한 이는 국제가격을 낮추고 가격변동의 폭을 악화시킨다. 이러한 경우에 무역정책의 개혁을 위해서는 각 제품의 지원책 있어서의 더욱 근본적인 변화가 필수적이다.

쌍무 및 지역 무역 협정이 증가하고 있다.

많은 국가들이 미래에 세계시장과 특히 몇몇 제품들을 위한 국내지원정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역적 및 그 외 특혜무역조치를 취하고 있다. 대부분의 WTO 국가들이 한 개 이상의 지역 무역협정가입국이며 2005 년까지 발효되는 지역무역협정의 수가 300 개에 육박할 것이다. 10 개 중앙 및 동부유럽국가들이 2004 년 5 월 1 일에 EU 에 가입하여 이제 EU 는 25 개국의 회원국을 보유하게 될 것이다. EU 의 확대는 이번 전망 보고서에는 고려되지 않았지만, EU 집행위원회는 농업시장에 미칠 수 있는 영향에 대한 "확대이후의 EU 농업시장의 발전"이라는 평가서를 내놓았다. EU 와 루마니아와 불가리아를 포함하는 10 개 EU 가입 지원국들은 상호시장 접근확대에 동의하는 협정을 체결했다. 여기에다가 EU 는 "무기 이외의 모든 제품"에(EBA) 관한 이니시어티브를 실시하여 최빈국들을 위한 시장접근을 향상시켰다. 한편, 2005 년에 발효될 미주지역 자유무역지대에 관한 토론이 계속되고 있다. 게다가 미국과 호주는 쌍방 자유무역협정 체결가능성에 대해서 논의하고 있으며, 이 외에도 많은 예들이 있다. 이러한 지역 및 쌍방 무역 협정들이 WTO 내에서의 다자간 무역협상의 결과와

비교해서 더욱 더 개방된 세계무역시스템을 이끌어 낼 수 있을지, 그리고 무역규정을 더욱 개선할 수 있을지는 경험을 해봐야 할 문제일 것이다.

도하 협상결과는 여전히 불확실하다.

현재 진행 중인 다자간 무역협상의 도하 개발 어젠다를 성공적으로 완수한다면 농업무역에 장기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고, 이는 무역왜곡을 감소시키며 세계시장의 기능을 더욱 향상시키게 될 것이다. 이러한 협상의 결과가 미지수이고, 전망기간의 끝으로 갈수록 농업시장에만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무역협상에 관한 언급은 기준 전망 예측치에 포함되지 않는다. WTO 농업위원회 위원장은 협상방식에 관한 1 차 초안을 발표했고, 그 후 3 월 18 일 협상방식에 관한 개정판이 나오게 되었다. 이 보고서를 작성할 때에 WTO 내에서의 농업에 관한 의무절차 수행을 위한 협상방식에 대해서는 합의를 이루어 내지 못했다. 협상방식은 2005 년까지 협상을 완수하기 위해 합의된 일정의 일부로 2003 년 3 월 31 일 마련되기로 되어있었다.

협상방식을 결정하는 시한을 넘기는 것은 유감스러운 일이다.

무역장관들이 도하개발 어젠다를 발족했을 때 도하협상을 성공적으로 이끌게 되어서 농업무역의 개혁이 진전된다면, 세계 빈국들에게 최대의 이득을 줄 수 있을 것이라는 폭넓은 인식이 팽배했다. 세계 통합과 발전에 큰 보탬이 될 수 있으리라는 기대에서, 협상완수를 위한 빡빡한 일정이 마련되었다. 따라서 농업에 관한 협상의 진전을 위한 협상방식의 결정 시한을 맞추지 못하는 것은 유감스러운 것이다.

새로운 조약 체결을 위한 국제 협력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농업에 관한 WTO 무역 협상은 지금 아주 중요한 시기에 있다. 모든 국가들이 자신의 협상태도를 변화시킬 필요가 있다. 협상태도에 있어서 각국이 보여야 할 융통성은 2001 년 11 월 도하 각료선언을 통해 했던 약속을 지키기 위하여 필요하다. 만약 융통성을 발휘하지 못하여 정치적, 무역적 관계의 강화를 통한 국제협력정신의 재강화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전체적으로 농업무역개혁을 통해 무역을 발전시키고 세계 빈국들을 위한 성장 발전의 이득을 줄 수 있는 기회는 지연되거나, 잘못된 경우에는 놓치게 될 것이다.

본 개요는, 영어 (**OECD Agricultural Outlook 2003/2008**)와
프랑스어(**Perspectives agricoles de l'OCDE: 2003/2008**) 표제로 각각
발간되었던 OECD 출판물의 발췌문을 번역한 것입니다.
ⓒ 2003, OECD

OECD 출판물과 개요는 www.oecd.org/bookshop / 에서 제공되고 있습니다.
Online Bookshop 홈페이지의 "Title search"박스에서 "Overview"를
입력하거나 해당 영어 표제를 입력하십시오.
(개요는 영어 출판물로 링크되어 있습니다.)

본 개요는 Public Affairs and Communications Directorate 의
OECD Rights and Translation 부에서 제공한 것입니다.
Email : rights@oecd.org / Fax : +33 1 45 24 13 91

© OECD, 2003
OECD 저작권 및 원본 출판물의 표제를 언급할 경우 본 개요를 복제할 수
있습니다.